

제목: 「한국학 자료 연구를 위한 학생·포스트닥터 워크숍 in Seoul」 보고서

이름: 코이케 오사무

소속: 도쿄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

전공: 지역문화연구전공(2016년 3월 현재)

2016년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한국학 자료 연구를 위한 학생·포스트닥터 워크숍 in Seoul」에 참가하였다. 이하에 방문한 각 기관에서의 활동의 개요와 소견을 간단히 적고 보고하도록 하겠다.

21일 저녁의 참가자 대면에 이어, 다음 22일 오전에 방문한 세종 연구소에서는 연구소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후, 도서실을 견학하였다. 연구소 현황 설명에서는 국책연구 기관과는 달리 민간 연구 기관으로서 독립하여 연구를 하고 있는 점,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철저한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도서실에서는 연구소 설립 당시에 수집한 귀중한 영문서적이 많이 소장되어 있었던 것과 과거에 열람이 제한되어 있었던 북한 관련 문서고가 있었던 것이 흥미로웠다.

세종연구소에 이어 22일 오후에 방문한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에서는 관내 견학 뒤,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관내 견학 투어에서는 문서자료 보존 방법뿐만 아니라, 사진자료나 영상자료가 최신의 기술로 보존 처리되는 과정을 직접 작업하는 모습을 보는 형태로 체험할 수 있었다. 질의 응답에서는 자료의 구체적인 수량이나 열람 방법 등에 관하여 더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다음날 22일 오후에 방문한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후, 자료검색의 실습을 하였다. 데이터베이스가 충실함과 동시에 검색이 매우 용이하였으며 외부에서도 열람 가능한 자료도 존재하였다.

이어 방문한 국민대학교 에서는 류미나 선생님의 강연을 들은 후 참여한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교류회를 가졌다. 류 선생님의 “자료 검색 방법 과 연습”에 관한 강연에서는 선생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료를 사용한 연구의 진행 방식에 대해 한일 양국의 자료들을 망라하면서 이야기해주셨다. 국사편찬위원회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언급하시고 그 데이터베이스가 방대한 자료군 중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다.

마지막 날인 23일 오전에 방문한 외교사료관에서는 한국 외교사료의 개요 설명을 들은 뒤,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방법 등의 실습을 하였다.

본 워크숍을 통해서 보고자의 연구에서는 주로 외교사료관의 사료만 이용해 온 바, 타 분야의 자료도 접할 수 있고, 한국학 연구를 위한 자료조사에 대해서 종합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더불어, 같은 대학에 소속하고, 같은 지역의 연구를 하면서 지금까지 만날 수 없었던 많은 학우들을 알게 되고 교류할 수 있었던 것 또한 큰

성과이었다.

글을 맺으면서 이러한 뜻 깊은 워크숍에 참가하는 기회를 주신 한국학연구부문의 선생님들, 흔쾌히 방문을 받아 주신 각 연구기관의 여러분, 그리고 후원해주신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다.